

〈제 717호〉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광주순환도로투자

◆ 적십자 특별회비 기탁



광주순환도로투자 · 광주순환(대표이사 이영훈)은 기부문화 확산과 적십자회비 모금 장려를 위한 적십자 특별회비 1,000만원을 기탁했다.

기탁한 적십자 특별회비는 각종 재난과 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구호와 위기가정 긴급 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영훈 대표이사는 “광주시민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성장했기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며 “우리 주변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는 대한적십자사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적십자회비 모금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은행

◆ 설 명절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설 명절을 앞두고 경영자금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별자금대출’로 신규자금 3천억원을 편성해 오는 2월 28일까지 긴급 지원한다.

이번 특별자금 지원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현안을 고려해 민생안정 대책으로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설을 앞두고 발빠르게 시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노무비나 체불임금 지급, 원자재 구입자금, 긴급결제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3천억원의 만기연장자금을 함께 편성하여 이 기간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에 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출받은 고객이 원할 경우, 만기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이번 설 특별자금대출의 업체당 지원 한도는 최고 50억원 이내로 금리는 산출금리 대비 최대 0.70%포인트(P)를 우대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호타이어

◆ 설 명절 맞아 ‘이웃사랑 캠페인’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정일택)는 설 명절을 맞아 광주·곡성 공장 인근 홀로노인과 노인 복지관에 제수용품과 식료품을 전달하는 ‘이웃사랑 캠페인’을 펼쳤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002년부터 매년 명절 때마다 이웃들에게 제수용품과 희망을 전달하는 이웃사랑 캠페인을 갖고 있으며, 이번 설 명절에도 광주·곡성 공장 인근 홀로사는 노인과 소외된 이웃 200명에게 전달될 1천만원 상당의 제수용품과 식료품을 준비했다. 이 물품은 광산구청을 비롯해 광산구 어룡동 행정복지센터, 광산구 더불어락 노인복지관, 서구 노인 복지관, 곡성군 입면사무소 등을 통해 각 가정에 전달됐다.

기아 AutoLand광주

◆ 노사합동 헌혈 캠페인



기아 AutoLand광주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혈액 수급에 보탬이 되고자 임직원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를 독려하는 노사 합동 헌혈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헌혈 캠페인은 기아 AutoLand광주 노사와 적십자 봉사회,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의 협조로 17일까지 진행됐으며, 지난 12일 시작된

캠페인에는 김희준 기아 AutoLand광주 경영지원실장과 오상록 기아 노동조합 광주지회 수석부지회장이 노사를 대표해 헌혈에 동참했다.

기아 관계자는 “겨울철 부족한 혈액수급 문제에 도움을 주고자 헌혈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며 “이번 기아의 헌혈을 시작으로 더욱 많은 곳으로 헌혈의 온기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유에이텍

◆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으로 도약



대유에이텍이 새로운 경영방침으로 ‘글로벌 경영’과 ‘NEW WAY’ 그리고 ‘발상의 전환’을 택하고 신사업 개발과 R&D 역량 강화에 주력하기 위해 경영방침을 밝히고 “최정상의 기술력과 품질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자동차 시트 전문 기업을 넘어 사람과 모빌리티 공간을 이어주며 인간중심적 가치를 지향하는 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유에이텍은 전기차 전용 시트 생산 설비 구축과 연구개발(R&D)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나서며, 친환경 전기차에 적합한 맞춤형 인체공학적 시트를 개발하기 위한 선행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해양조

◆ 순천시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장학금 지원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가 순천시 청소년 문화의집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보해양조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적인 청소년을 선발해 중학생 2명에게 장학금 각 70만 원씩 총 140만 원을 전달했다. 1981년 보해양조가 설립한 보해장학회는 광주전남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인성이 모범적인 청소년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42년간 선발된 인원은 3,924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장학금은 37억 원에 달한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하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고자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사회를 발전시키는 기업으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 알 림 >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사오니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 최 정 열 총무팀장

○ e-mail : gjef3425@naver.com

광주테크노파크

전남일보 2023년 1월12일 목요일

오피니언

드디어 광주가 CES에

이침을 열며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광주관에 온 지스트 교수가 감격해 ‘드디어!’라고 했다. 개관식에서 인사말을 한 광주시장은 가슴이 울컥했다고 했다. 이를 지켜본 시의원 한명은 ‘드디어 광주!’라며 건배했다.

광주시의 가전제품 8개 사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에 광주공동브랜드관 이름으로 공동 홍보관을 열어 전시회에 참가했다. 광주공동브랜드(지엘 GIEL) 27개 사 중에서 8개 업체의 14개 제품이 선정됐다. 거기에 이번에 CES 혁신상을 받은 인공지능 관련기업 1개 사 제품이 추가 전시됐다.

지난 5일 광주테크노파크가 주관해 CES 전시관에서 열린 광주공동브랜드관 개관식에는 전시에 참여한 기업대표를 비롯해 광주시장, 광주시의회 의장, 삼성·LG의 임원, 세계한인무역협회 LA지회 대표와 회원들, LA 총영사관, 코트라 사장, 호남대와 동강대 총장과 교수 등 많은 인사들이 참석했다.

광주시장은 ‘그간 광주는 CES에 전시 관람만 했지 단 한번도 광주제품을 가지고 참여하지 못했으나 이번에 드디어 처음으로 광주의 제품을 가지고 참여했다’고 말하며 메이드인광주를 전 세계에 진출토록 하겠다고 기업들을 격려했다.

참가한 기업 중 광촉매를 활용한 공기 살균정정기를 출시한 벤텍프론티어는 미국기업과 1000만불 수출 협약이라는 쾌거를 만들어 냈다.

다른 참가 기업들인 디케이, 이드엠, 티아아피인터내셔널, 현성오토텍, 쓰리 에이지스, 아이콘, 아이디어스 그리고

이번 CES혁신상을 받은 인공지능기업 인디제이 모두 중소기업 제품이지만 실생활에 매우 필요한 아이디어가 기술력이 담긴 제품으로 국내외 관람자들로부터 주목을 끌었다.

전시한 4일 동안 국회의원을 비롯한 자치단체장, 대학총장, 연구소, 중견기업 대표 등도 잇따라 광주관을 방문해 상품을 살펴보고 격려를 보냈다. 참가기업 대표들은 국제적인 CES에 전시하는 것도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일인데 홍보 마케팅 기회를 얻어 매우 기쁘다고 했다. 한 기업은 3년 이내에 CES를 대표하는 혁신기업이 되어 보겠다고 야심 찬 의지를 밝혔다.

이에 참석한 언론인들은 광주 기업 CES에서 세계진출의 희망을 쏘았다고 보도했다.

알고 보면 어렵지 않은 일이었으나 기간 시도조차 못 했다. 없는 예산 일부를 모아 광주전시관을 만들고 시장과 시의원, 대학을 비롯한 방문단을 만들어 CES에 참가했다. 이걸 해보자는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했다. 올해는 적은 예산으로 인해 여러 기업이 참가하지 못하고 전시관 운영도 어려웠다.

현장에서 광주방문단들은 간담회를 갖고 내년에는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예산도 증액해 보다 많은 광주기업들이 참여하도록 하자고 현장 결의를 했다.

CES에는 대학전시관도 있었는데 서울대, 카이스트, 한양대, 한서대 등 국내 몇 대학이 참석했다. 광주에서 참여한 대학은 하나도 없어 아쉬웠다. 개별적으로 참석한 대학 총장들은 내년에는 대학에서도 광주전시관과 더불어 참여 부스를 만들겠다고 했다.

중소기업부는 국내 스타트업 전시관을 크게 만들었는데 광주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했다. 광주창업성공도시를 위해 지역 스타트업 기업들의 참여도 만들자고 했다.

이번 CES에서 삼성·LG·SK·LG이노텍 등 우리나라 대기업의 전시 규모는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이었고 엄청난 관람자들을 모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이 서로 조화와 융합을 이루면서 참여했다면 보다 큰 효과가 있었을 텐데 각각 따로인 것은 아쉬운 일이다.

종합적으로 이번 CES엔 174개국에서 3100개 사가 참여했고 10만여명이 참여해 기술과 제품을 전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후 최대 규모의 전시였다. 미·중 갈등으로 중국의 참여가 줄었고 한국의 비중이 늘었다.

코로나19 이후 삶과 생활을 변화시킨 디지털, 의료, 헬스케어 기술, 고령화, 식품, 미용 등 바이오 기술, 전기차, 배터리, 수소연료 등 에너지 기술, AR, VR, 메타버스, 커뮤니케이션 기술 등이 대세를 이뤘다.

어쨌든 2023년 광주는 드디어 CES에 전시관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그리고 현장에서 새로운 기술을 눈으로 보고 토론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귀중한 시간을 보냈다.

CES만이 다는 아니다. 그러나 CES를 통해 광주는 새로운 생각과 혁신 도전을 만들어 보자는 집단학습의 기회를 만들었다.

이제 나가야 한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혁신 기술과 제품으로 국내의 시장으로 나가야 한다. 그리고 CES와 같은 세계 무대에서 비교하고 관찰하며 벤치마킹해야 한다.

광주시와 광주테크노파크는 광주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다. CES 광주브랜드관 개관이 올해 메이드인 광주 글로벌 진출의 시작이고 신호탄이다.

‘드디어 광주’에서 ‘광주가 결국 해냈다’는 신화를 쓰자는 대화를 CES현장에서 치열하게 나누고 있다.

〈제1587회 금요조찬포럼〉

강사: 이정현(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 주제: 광주 전남의 대전환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김봉길)는 1월13일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이정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을 초청 <광주 전남의 대전환>이란 주제로 1587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

대한민국은 지역이 소외된 게 아니라,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현실이 큰일이다. 전국 228개 시·군 중 113개가 소멸대상이고 전남은 17개 시·군 중 16개가 대상이다. 게다가 인구 불균형으로 52%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한해 10만여명의 청년이 취업을 위해 지방에서 몰려오고 있다.

세상은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고, 디지털 기술전문가의 87%가 수도권에 있다.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지방 소멸을 막는 국가 대개조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방도시 통합정책, 공기업 이전정책 등을 했다. 가장 지방을 잘 아는 사람은? 그 지방 사람이다. 그런데 지역 특성이 없는 정책을 하다보니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모든 권한을 지자체에다 맡겨보자. 광주에 기아현대자동차가 40만대를 조립 생산하는데 광주 경제비중의 37%다. 인센티브를 주면서 80만대로 늘리고 기업 규제는 임시적으로 완화해주면 광주와 현대가 해결하면 된다. 80만대가 되면 물류비용 때문에 부품을 수도권 지역에서 가져오기 힘들고 주변에서 직접 생산해야 된다. 거기에 필요한 부지와 제반요소를 지자체에서 해결해 주면 훨씬 큰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화순에 백신단지가 있지만 SK가 경북 안동에 백신공장을 지었다. 유치에 노력을 해야 한다. 화순에 전남대 의대가 있고, 장성에 심혈관센터가 들어서고 정형,성형, 치과 부분의 의료기기, 첨단 의학, 재생의학 관련 생산단지를 유치해야 한다. 영광 솔라시도는 당초 관광지 개발사업이었지만 650만 평이 지금은 사용을 못하고 있다. 그곳에 대기업이 주목하고 있는 재생 에너지 관련 전력을 모아 서울로 송전하는 허브 터미널 장소로 사용하면 1조8천억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광양제철은 전세계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강판의 90%를 생산하고 있다. 게다가 밧데리에 가장 핵심인 이차전지 소재가 생산되는 포스코케미칼이 있어 공장부지를 늘려야 하는데 제철단지로 묶여 있어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 이제 여러분을 포함한 지역사회가 나서서 대화도 하고 준비해야 한다. 이것 뿐만아니라 우주산업도 발사체는 고흥인데 관련된 것은 대전에 있고 생산 공장은 사천에 있다. 군사드론도 최적의 지역이 고흥이다. 광주공항 이전문제도 난항을 겪고 있지만 무안공항을 동남아 전용 공항으로 만든다면 물류창고도 만들고, 비행기 정비공장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광주에는 전국지자체 중 유일하게 AI 데이터 센터를 신청하여 선정되었고 기업들은 디지털로 바꾸어야 한다. 이제는 데이터가 최고의 자산이 되고 있다. 광주는 앞으로 굉장히 앞선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지역에 있는 것을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에 있는 것을 키우고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분들이 나서 주시면 좋겠다.



II. 광주경충 소식

〈2023년도 한국노총 광주본부 정기대의원대회 축사〉



본회 김봉길 회장은 지난 12일 임동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개최된 2023년도 한국노총 광주 지역본부 정기대의원대회를 축하했다.

김봉길 회장은 축사를 통해“행사를 준비하신 윤종해 의장님을 비롯한 노동계 지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노사협력 유공자 수상분들에게도 축하 말씀을 전한다”면서“올해는 더욱 경제가 악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어려운 시기일수록 지역 노사민정이 힘을 합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무국 일지(1.9 ~ 1.13)

1.12 (목)	● 한국노총 광주본부 정기대의원대회	1.13 (금)	● 제1587회 금요조찬포럼
-------------	---------------------	-------------	-----------------

1. 노사 동향

■ 고용부는 노동개혁 완수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1. 9)

- 고용부는 2023년 핵심 추진과제로 ① 노동개혁 완수, ②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③ 일자리 불확실성 선제 대응을 선정하고 과제별 세부 계획 발표

[참고] 고용노동부 2023년 업무 추진계획 관련

주요 과제	주요 내용
노동개혁 완수	<p>■ 노사 법치주의 확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등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공정채용 문화 확산, 5대 불법·부조리** 근절 * 노사 부조리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1. 20~)하고, 경사노위 내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 구성 ** 5대 불법·부조리 :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불공정 채용, 직장내 괴롭힘 <p>■ 노동규범 현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 자율적 선택권 확대를 위한 근로시간 관련 입법*파견제도 선진화**,부분근로자대표 도입, 노사 대등성 확보를 위한 대체근로 개편 *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1주 단위 → 年 단위),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연구개발 외 1개월 → 全 업종 3개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등 ** 파견·도급기준 법제화, 파견대상 확대 등 <p>■ 중대재해 감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 중소기업 대상 산업안전 관련 점검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 전문가 TF운영(1~5월) →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안 마련 (6월) 후 입법추진

Ⅲ. 노동경제동향

주요 과제	주요 내용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 - 임금격차 실태조사 등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는 ‘상생임금위원회’ 발족(1월) ■ 상생과 연대의 산업·노동 생태계 조성 - 조선업 ‘상생협력 실천협약’ 등 원·하청 상생모델 확산 ■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등
일자리 불확실성 선제 대응	■ 기업 구인난 해소 - 업종별 취업지원허브 신설, 지역단위 일자리 정보시스템 구축 등 ■ 취약계층 일자리 장벽 제거 - 청년 지원 프로그램의 양과 질 제고, 육아휴직 사용기간 확대 등 ■ 노동시장 참여 촉진형 고용안전망으로 개편 - 반복 수급자 단계적 감액 등 재취업 기능 강화

- 한편, 대통령은 고용부의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노사 현안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적 해결을 지향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
- 고용부는 1. 12 노동개혁 추진과 관련해「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 회의」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개최
 - 금일 회의에서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노사 불법·부당행위 근절 등 ‘노동관행 개선 필요성 및 추진 방향’을 논의함.

[참고] 노동관행 개선 자문단 구성 관련

구분		인원
자문단장		김경울 공인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자문단 전문가	노동법<4명>	김희성 교수(강원대), 권혁 교수(부산대), 신동윤 교수(단국대), 남궁준(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회계·세법<4명>	김경울 공인회계사, 배원기 교수(홍익대), 손원익 교수(연세대), 박훈 교수(서울시립대)

Ⅲ. 노동경제동향

■ 경총은 「주요 기업 CHO 간담회」를 통해 노동개혁 방안 논의

- 경총 손경식 회장은 금번 간담회에서 “산업 대변혁의 시대에 대응해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을 통해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과 협력적 노사관계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
- 또한 노동개혁의 과제로는 ① 노사 법치주의, ②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③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④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을 제시

[참고] 노동개혁 주요 과제(경총)

과제	주요 내용
노사 법치주의	▲노동개혁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 - 산업현장 불법행위 해소를 위해 정부에 의견 적극 개진, ‘산업 현장 불법행위 대응 TF’ 가동 등 ▲법과 원칙 준수를 통한 준법질서 확립 - ① 노조에 대한 부당한 지원 중단, ② 부당노동행위 근절, ③ 산업안전 규정 준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근로시간 활용의 유연성 확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구축 필요 ▲해고제도 개선 및 파견 허용 업종 확대 필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시 정부, 노동계와 논의를 통해 ① 실업급여 조정, ② 근로자 교육·훈련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주요 기업들의 동참 필요 - 과도한 임금인상 자제 및 해당 재원의 청년 채용 관련 활용 등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 시급 - ① 대체근로 허용, ②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필요

■ 양 노총은 고용부의 노동개혁 추진을 노동계 탄압이라고 비판

- 한국노총은 고용부가 발표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법치주의를 내세워 노조를 부패세력으로 몰아세우는 것이고, 노조와의 사회적 대화가 불필요하다는 선전 포고”라는 입장 발표
- 한국노총은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으로 ▲장시간 노동 및 저임금체계 고착, ▲불법파견의 합법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

Ⅲ. 노동경제동향

-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개혁을 “노동조합 무력화로 더 많이 일을 시키고, 임금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노동개혁”이라고 주장
- 또한 민주노총은 정부와 기업 때문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고착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산별교섭 등 초기업 단위 교섭 보장, ▲초기업 단위로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등을 요구

2. 법제 동향

■ 박영순 의원(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9)

- (발의 이유) 현행법(근로기준법 제39조)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등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는 경우 발급할 의무가 있으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계약 형태만 기재하고 직위를 표기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제기

※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증명서에 직급(호칭)을 병기할 것을 권고(21진정0587600)

- (주요 내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증명서에 지위 등을 표기하지 않는 것을 금지

■ 이학영 의원(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9)

- (발의 이유) 현행법(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은 사업주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장의 명칭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주 등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공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 제기

- (주요 내용)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발생사실을 공표할 것을 의무화